

■ 교육

학자금 보조 신청하면 대학 합격에 불리할까?

지금은 대학 레귤러 지원 시즌이다. 하버드 대학 등 명문 대학들의 레귤러 마감일이 1월 1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레귤러 지원을 하면서 ‘학자금 보조’를 신청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면 대학에 떨어진다’라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된 탓이다.

미국 대학들은 성적 우수 장학금과 함께 가정의 경제적 환경에 따라 학비를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일정 액수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보조해 준다. 이것을 Financial Aid라고 한다. ‘학자금 보조’를 제공할 때 미국 대학들은 Need Aware(Need Sensitive) 또는 Need Blind 정책을 쓴다.

Need Blind 정책을 쓰는 대학들은 지원 학생이 ‘학자금 보조’를 신청했을 때 당락의 결정에 부모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대학은 입학 사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해 놓고, 학생이 ‘학자금 보조’를 신청하면 필요한 만큼의 보조를 해 준다.

그러나 Need Aware의 경우에는 지원 학생이 ‘학자금 보조’ 신청을 했는가가 여부가 사정에 반영이 된다. 즉 ‘학자금 보조’를 요청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불리할 수 있다. 물론 성적이 합격자 평균보다 낮거나 학부모가 학자금 부담액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했다면 대학은 이 학생을 불합격시킬 수 있다.

학부모들은 단순히 Need Aware 정책을 쓰는 대학에 지원해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면 ‘불리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학자금 보조/재정보조(장학금)를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학생이 달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 학자금 보조가 필요한 경우 적정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Need Aware 대학에 지원했다 떨어진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그 대학이 뽑을 만큼 뛰어난 성적’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 재정보조를 달라고 한 경우다. Need Aware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해당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보다 월등히 성적이 우수하고, 대학이 납득할 수준의 학부모 부담금을 쓰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 어떻게 해야 하나?

합격도 하고 동시에 재정보조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해 지원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문제는 부모나 학생의 입장으로 ‘그 대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적정 대학’이라고 선택한 대학들도 대부분 ‘상향 대학’인 경우가 많다. 즉 학생의 실력으로 어느 수준의 대학을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땐 학교 카운슬러나 입시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레귤러 지원이 시작됐다. 레귤러에 재정보조를 꼭 받아야 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에 맞는 대학을 골라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Creek Park - 라미라다시

플러틴이나 라미라다 시 대부분의 공원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나 이 크릭 파크는 한국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다. 부에나파크 한인 마켓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임에도 한인들이 잘 찾지 않는 까닭은 공원 자체가 아담하고 작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공원들이 호수를 끼고 있는데 이 공원에는 호수가 없다.

크릭 파크는 라미라다 시의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원으로 가운데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고 중간에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댐과 수문이 있다. 비가 잘 오지 않는 남가주에서는 폭우가 쏟아질 경우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도로가 물에 잠기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물이 잘 흐르도록 만들어진 공원이다. 공원의 동쪽 끝에는 모닥불 놀이를 하도록 불자리가 동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65명 정도가 즐길 수 있도록 원형극장이 만들어져 있다. 이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라미라다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쪽 끝에는 말 타는 사람들이 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모래사장이 만들어져 있다. 공원의 남쪽 가장자리에는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포장하지 않은 길이 동서로 이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말타기를 배울 수도 있고 승마를 즐길 수도 있다. 승마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바란다.

물론 흙을 밟으며 걷고 싶은 사람들이 즐겨도 된다. 공원의 동쪽에는 하늘로 곧게 뻗은 소나무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어 동양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 크릭 공원은 아침에 조깅하기에도 좋으며 가족들이 피크닉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그러나 바비큐 그릴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끝에서 끝까지 왕복해도 2마일이 채 되지 않기에 30분 내외에 왕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좀 더 길게 걷고 싶으면 공원 서쪽 끝에서 임페리얼 하이웨이까지 연결된 흙길을 걸어도 좋으며 더 걷고 싶으면 임페리얼 하이웨이를 건너 계속 이어진 크릭 파크를 걸어서 La Mirada Blvd.까지 걸을 수도 있다. 필자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다.

▶ 가는 길: La Mirada Blvd.와 Beach Blvd.가 만나는 곳의 한인 마켓에서 La Mirada Blvd. 북쪽으로 주욱 가다가 Imperial Hwy를 만나면 우회전해서 0.2마일 가다가 Las Flores Ave.를 만나면 좌회전한다. 길 이름이 Stamy Rd.로 바뀌자마자 곧 오른쪽에 공원 주차장이 나온다. 공원의 서쪽 끝이 Santa Gertrudes Ave.이며 이 곳에도 주차장이 있어 이곳에 주차하고 걸어도 좋다.

▶ 승마 교실: Mindy 562-383-2970
Kathy 562-448-2339
(k.mhorseexperience@gmail.com)

■ Creek Park: (562) 943-7277
12021 Santa Gertrudes Avenue



사진=타운뉴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